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 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여당당

## 여성NEWS

여성이 바로 서야 고성이 산다



여당당. 여당당은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다.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세상!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

# 밝은 미소와 친절로 민원인에게 시원함 선사

## ‘친절공무원’ 고성군청 고객봉사과 신희영씨

무더운 날씨 속에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은 따뜻한 미소로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에어컨 만큼이나 시원한 만족감을 느낀다.

고성군청 고객봉사과 지적팀 신희영씨(35세, 사진)는 민원인들에게 늘 따뜻한 미소와 친절을 서비스해 주위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그녀는 창구를 찾는 민원인은 물론 상급 기관에서 업무협조가 있을 때도 친절하고 성실하게 처리해, 최근 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소개되기도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에 근무하는 정일수씨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토지 지목변경 업무와 관련해 공문을 보냈는데, 업무가 미숙해 토지이동신청서를 누락하고 이동조서 내용도 틀린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없이 그 많은 것을 수정해주고 전화로 자세히 가르쳐줬다”고 칭찬했다.

신씨는 춘천 효자동 태생으로 직장생활을 하다 다소 늦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지난 2007년 1월 고성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올해로 5년째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는 처음 근무 당시만 해도 춘천과는 분위기가 달라 적응하기가 다소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특히 주민들의 억양이 강하고 얼굴이 검은 분들이 많아 무섭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제는 알아요, 우리 고성주민들이 목소리가 강하고 첫인상이 다소 거칠지만 알고 보면 순진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라는 걸요.”

사소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에 있는 많은 동료들 덕분이였다. 특히 입사 동기인 남편 강태욱씨(31세, 간성읍사무소 건설팀)의 도움이 컸다.

이런 인연으로 지난해 1년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한 신씨는 “아직 신혼인 새내기 주부”라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무가 끝나는 대로 남편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그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생각한다고 했다.

“어머님은 항상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본을 먼저 지키게끔 우리를 길러주셨지요.”

평소 신씨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고객봉사과 지적팀 장명보 팀장은 “신희영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라며 “특히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모든



직원들에게 모범이 될만하다”고 자랑했다.

신씨는 “앞으로도 처음 공직에 입문했을 때의 마음자세로 주민들에게 밝은 미소와 친절로 대하겠다”며 “저의 작은 노력이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 여성공무원 50명 병영체험

22사단서 전차대대·통일전망대 등 견학

6급 이상 여성공무원 50명이 지난 7일 고성군 주둔 육군 제 22보병사단에서 병영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안보의 최일선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을 좀 더 이해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이뤄졌다.

여성 공무원들은 ‘안보·경제, 그리고 여성’이라는 주제로 안보교육을 받은 후 전차대대로 이동해 생활관과 전투물자를 견학하고, 이어 전차에 탑승해 실제 이동하는 체험도 가졌다.

이후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뒤 오후에는 해안 소초 견학 및 철책 도보답사, 통일전망대·DMZ박물관 견학 등을 진행했다.

이번 병영체험교육에 참여한 여성



공무원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느낄 수 있었다”며, “군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2사단은 군에 대한 이해심 고취와 국가관·안보관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병영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 여성단체 탐방 ⑤

### 저소득층에 쌀·연탄전달 봉사활동

#### 고성군 재향군인회 여성회

“자발적 봉사참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1991년 2월 28일 창립된 고성군 재향군인회 여성회(회장 이두남)는 1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과 참전유공자 300여 명에게 위로연을 개최해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또 매년 지역의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10가구를 방문해 쌀 10포(20kg)를 전달하고, 집주변과 집안청소 등을 하며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연탄배달봉사에도 적

극적으로 참가해 10가구에 1천장을 전달해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랑의 집수리 봉사자들에게 식사 제공 및 부족한 일손 돕기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행사인 문화·체육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하고 있다.

이두남 회장은 “회원들의 복지 증진 및 자기 발전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이두남 향군 여성회장